

permalink : <https://sitereports.nabunken.go.jp/ja/online-library/report/52>

文化財多言語化研究報告 4 号

文化財韓国語スタイル・マニュアル

扈 素妍 (奈良文化財研究所)

Style Manual for Korean Texts: Basic

Ho Soyeon (Nar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Cultural Properties)

文化財多言語化韓国語スタイル・マニュアル
문화재 다언어화 한국어 스타일 매뉴얼
Style Manual for Korean Texts: Basic

扈素妍・奈良文化財研究所

Ho Soyeon・Nar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Cultural
Properties

범례

- 본문 중 설명문 아래에 나와있는 ①②③...과 같은 번호가 붙어있는 문장 혹은 단어는 번역 예시이며 이러한 예들은 모두 나라문화재연구소에서 출판한 문헌 중에서 발췌한 것이다.
- 본 문서는 한국의 국립국어원 한국어 어문 규범 (<https://kornorms.korean.go.kr/>) 을 토대로 하여 작성하였다.
- 본 문서 중 제 7 항의 내용은 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2015 국립중앙박물관 전시품 명칭 용례집』 (국립중앙박물관, 2015) 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 본 문서에 나오는 나문연은 나라문화재연구소를 말한다.
- 본문에서 밑줄을 그은 문장은 모두 국립국어원 한국어 어문 규범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1 참고문헌

1.1 스타일 매뉴얼의 항목

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은 『The Chicago Manual of Style』 (이하 『CMOS』) 최신판을 참고하여 작성한 Rebekah Harmon & Peter Yanase 의 「文化財英訳スタイル・マニュアル (英語版)」을 바탕으로 하였다.

1.2 사전 등

국립국어원 한국어 어문 규범 (<https://kornorms.korean.go.kr/>) .
扈素妍, 「文化財韓訳スタイル・マニュアル:約物変」, 『文化財多言語化研究』 3, 奈良文化財研究所, 2023.

권오운 編著, 『우리말 띄어쓰기 대사전』, 집사채, 2018 改訂版.
『한·영·중·일 고고학용어비교집』,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2 한글 표기 기본 방침

2.1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어문 규범에 따른 규칙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글, 한국어 표기를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어문 규범에 따라 작성한다. 그러나 이 스타일 매뉴얼은 일본에서 관광, 전시장 등에 한글 및 한국어 표기를 어떻게 할지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문 규범을 기반으로 하여 나문연의 방침을 추가로 기입하였다.

2.1.1 한글 표기 기본

제 1 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제 2 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제 3 항 받침에는 ‘ㄱ, ㄴ, ㄷ,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제 4 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2.1.2 한글과 일본어 카나 대응표

파란색으로 칠한 곳은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어문 규범과 달리 나문연의 방침이다. 이는 한국어의 외국어 표기법에 대한 선행 연구에

서도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일본어 카, 타, 차 행에 대한 한글 표기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가나	한글	
	어두	어중·어말
アイウエオ	아 이 우 에 오	아 이 우 에 오
カキクケコ	카 키 쿠 케 코	카 키 쿠 케 코
サシスセソ	사 시 스 세 소	사 시 스 세 소
タチツテト	타 치 쓰 테 토	타 치 쓰 테 토
ナニヌネノ	나 니 누 네 노	나 니 누 네 노
ハヒフヘホ	하 히 후 헤 호	하 히 후 헤 호
マミムメモ	마 미 무 메 모	마 미 무 메 모
ヤイユエヨ	야 이 유 에 요	야 이 유 에 요
ラリルレロ	라 리 루 레 로	라 리 루 레 로
ワ(ヰ)ウ(ヱ)ヲ	와 (이) 우 (에) 오	와 (이) 우 (에) 오
ン		ㄴ
ガギグゲゴ	가 기 구 게 고	가 기 구 게 고
ザジズゼゾ	자 지 즈 제 조	자 지 즈 제 조
ダヂヅデド	다 지 즈 데 도	다 지 즈 데 도

가나	한글	
	어두	어중·어말
バ ビ ブ ベ ボ	바 비 부 베 보	바 비 부 베 보
パ ピ プ ペ ポ	파 피 푸 페 포	파 피 푸 페 포
キャ キュ キョ	카 큐 교	카 큐 교
ギャ ギュ ギョ	가 규 교	가 규 교
シャ シュ ショ	샤 슈 쇼	샤 슈 쇼
ジャ ジュ ジョ	자 주 조	자 주 조
チャ チュ チョ	차 추 초	차 추 초
ニャ ニュ ニョ	냐 뉴 뇨	냐 뉴 뇨
ヒャ ヒュ ヒョ	햐 휴 효	햐 휴 효
ビャ ビュ ビョ	บาย 뷰 묘	บาย 뷰 묘
ピャ ピュ ピョ	파 퓨 표	파 퓨 표
ミャ ミュ ミョ	먀 뮤 묘	먀 뮤 묘
リャ リュ リョ	랴 류 료	랴 류 료

2.1.3 축음 표기

축음은 ‘ㅅ’로 통일해서 적는다.

- ① サッポロ → 삿포르
- ② トットリ → 돛토리
- ③ ヨッカイチ → 윗카이치

2.1.4 장모음표기

장모음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 ① 九州 → 큐슈
- ② 新潟 → 니가타
- ③ 東京 → 도쿄

3 고유명사와 칭호

3.1 인명

3.1.1 한국어 어문 규범에 따른 동양의 인명·지명 표기법

제 1 항 중국 인명은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분하여 과거인은 종전의 한자음대로 표기하고, 현대인은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제 2 항 중국의 역사 지명으로서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리 한자음대로 하고, 현재 지명과 동일한 것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제 3 항 일본의 인명과 지명은 과거와 현대의 구분 없이 일본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제 4 항 중국 및 일본의 지명 가운데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이를 허용한다.

3.1.2 나라문화재연구소 내부 방침

기본적으로 이름을 표기할 때에는 전술한 「한국어 어문 규범」에 따를 것. 일본인, 중국인, 한국인의 이름을 '성-명' 순으로 표기한다. 현대 예술가의 경우, 본인이 사용하는 표기를 따라야 한다. 국제적으로 알려진 현대 유명인의 경우, 가장 널리 알려진 표기를 사용해야 한다. 역사, 전승상의 인물은 그 인물이 태어난 것으로 알려진 지역에서 사용되는 이름으로 표기한다. 일본에서만 유명해져 본명을 알 수 없는 인물의 경우, 일본식 이름의 사용을 추천한다.

3.2 신불의 이름

일본의 신 이름은 일본어 이름을 그대로 한글 표기한 후 ()에 한자를 기입하여 이름 뒤에 넣을 것. 아미타여래 등은 한국식 부처 이름으로 표기한 후 ()에 한자를 기입하여 이름 뒤에 넣을 것.

- ① 素戔嗚尊→ 스사노오노미코토(素戔嗚尊)
- ② 伊弉諾尊→ 이자나기노미코토(伊弉諾尊)
- ③ 阿弥陀如来→ 아미타여래(阿弥陀如来)

3.3 절, 신사

시설의 종류를 나타내는 용어(「神社」, 「宮」, 「寺」, 「大社」 등)라 할지라도 명칭의 일부인 경우에는 음독을 그대로 한글로 표기하고 그 뒤에 반각 띄어쓰기를 넣어 「신사」, 「궁」, 「절」, 「대사」 등 그 역할을 나타내는 단어를 붙여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시에 협력하는 사찰에서 한글 표기에 관한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를 것.

- ① 平城宮→ 헤이조 궁
- ② 山田寺→ 야마다테라 절

3.4 지명

원칙적으로는 한국어 어문 규범의 「바다, 섬, 강, 산 등의 표기 세칙」에 바탕한 표기법을 따른다.

제 1 항 바다는 '해(海)'로 통일한다.

제 2 항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섬은 모두 '섬'으로 통일한다.

제 3 항 한자 사용 지역(일본, 중국)의 지명이 하나의 한자 단어로 되어 있을 경우, '강', '산', '호', '섬' 등은 겹쳐 적는다. 어문 규범에서는 원래 지명 표기에 대해서는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원래 지명의 발음을 표기한 한글 부분 바로 뒤에 한자를 ()에 넣어 표기할 것을 추천한다.

- ① 田上山 → 타나카미야마(田上山) 산
- ② 宇治川→ 우지가와(宇治川) 강

제 4 항 지명이 산맥, 산, 강 등의 뜻이 들어 있는 것은 '산맥', '산', '강' 등을 겹쳐 적는다.

3.5 유파와 가계

3.5.1 기본 방침

원칙적으로 지역명과 마찬가지로 인명 등의 고유명사는 일본어

음대로 읽은 것을 한글 표기하고 파(派)나 가(家)는 파/가로 한국어 한자음으로 읽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그리고 그 뒤에 ()를 넣어 한자를 병기한다.

- ① 狩野派 → 카노파(狩野派)
- ② 木挽町狩野家 → 코비키초카노가(木挽町狩野家)

3.5.1 각 유파와 가계의 당주

대(代) 앞에 반각 띄어쓰기를 넣어 한자의 한글 읽기인 '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① 樂家第七代 → 라쿠가 제 7 대

3.6 직위명과 칭호

3.6.1 기본 방침

현대 한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총리, 태후, 황제, 관장, 수상 등의 직명 및 칭호는 그대로 한국 한자음으로 표기로 할 것.

3.6.2 천황과 그 일족의 칭호

기본적으로 한국 한자음으로 표기한다. 그러나 天황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원문 작성자 및 전시 홍보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나문연에서는 일단 天황을 고유명사로서 천황으로 표기하기를 권장한다.

- ① 王, 皇子, 親王 → 왕, 황자, 친왕

② 皇女, 内親王, 女王 → 황녀, 내친왕, 여왕

③ 皇后 → 황후

4 날짜와 시간

4.1 날짜

기본적으로 일본어와 마찬가지로 연-일 순으로 표기한다. 일본 역사의 연호는 서력으로 전환하여 표기한다. 연호를 반드시 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력 뒤에 ()를 넣어 일본어 독음의 한글 표기와 한자를 넣어 표기한다.

다만, 동양 세계의 구력은 서력과 날짜가 완전히 합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예: 메이지 초기) 수정 시에는 연구자 및 원문 작성자와 상담하여 결정할 것을 추천한다.

① 天明3年 → 1783년

→ 1783(텐메이(天明) 3)년

4.2 시간

원칙적으로 24 시간제 표기법을 사용할 것.

4.3 기간

기간을 나타낼 때는 되도록 하이픈(-)을 사용한다. 기간의 시작과 끝에서 '오전', '오후', '기원전' 등의 기호가 같을 경우 후자를 생략한다. 단, 기간의 시작이 기원전이고 종료가 기원후인 경우에는 생략하지 않는다.

① 令和3年(2021年)1月2日(土) ~ 1月31日(日)

→ 2021년 1월 2일(토) - 31일(일)

② 紀元前 200 年 ~ 紀元前 300 年 → 기원전 200년 - 300년

4.4 시대구분

현재 나문연에서는 아래 표에 준하여 시대를 구분하고 있다. 한글로 표기할 때에도 이 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 구분은 한국의 또는 각 기관의 시대 구분과는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일본사 시대 구분을 서력 세기로 바꾸어 표기할 것. 해설문 등에 일본사 시대 구분을 사용하는 경우, 최초 게재 시에는 반드시 해당 서력 범위를 ()로 묶어 표기할 것.

나라문화재연구소의 시대구분표	
旧石器時代	구석기 시대(기원전 약 35,500 - 14,000년)
縄文時代	조몬 시대(기원전 약 14,000 - 800년)
続縄文時代	속 조몬 시대(기원전 약 5세기 - 기원후 7세기)
(沖繩) 貝塚時代	(오кина와) 패총 시대(기원전 약 14,000 - 기원후 10세기)
弥生時代	야요이 시대(기원전 약 8세기 - 기원후 3세기)
古代	고대(약 6세기 - 12세기)
古墳時代	고훈 시대(약 3세기 - 6세기)
オホーツク文化期	오호츠크 문화기(약 5세기 - 9세기)
飛鳥時代	아스카 시대(592 - 710)
擦文時代	사츠몬 시대(약 7세기 - 13세기)
奈良時代	나라 시대(710 - 794)
平安時代	헤이안 시대(794 - 1185)
トビニタイ文化期	토비니타이 문화기(약 10세기 - 13세기)
グスク時代	구스쿠 시대(약 10세기 - 15세기)
アイヌ文化期	아이누 문화기(약 13세기 - 19세기)
中世	중세(약 12세기 - 16세기)

鎌倉時代	카마쿠라 시대(1185 - 1333)
南北朝時代	남북조 시대(1333 - 1392)
室町時代	무로마치 시대(1392 - 1573)
戦国時代	전국 시대(약 15 세기 - 16 세기)
琉球王朝	류큐 왕조(약 15 세기 - 19 세기)
安土桃山時代	아즈치모모야마 시대(1573 - 1603)
近世	근세(약 16 세기 - 19 세기)
江戸時代	에도 시대(1603 - 1868)
近代	근대(약 19 세기 - 1945)
明治期	메이지기(1868 - 1912)
大正期	타이쇼기(1912 - 1926)
昭和期	쇼와기(1926 - 1989)
平成期	헤이세이기(1989 - 2019)
令和期	레이와기(2019 -)

① この土器は縄文中期のものだと推測されています。 → 이 토기는 조문(縄文)시대(기원전 약 14,000 ~ 800년) 중기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5 수와 단위

5.1 기본 방침

원문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되어 있을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한자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숫자의 한국 한자음을 한글로 표기할 것. 연도표기 외의 4 자리 이상의 숫자에 대해서는 쉼표를 사용할 것.

① 78 歳 → 78 세

② 二百年間 → 이백년간

5.2 순서나 순번을 나타내는 숫자

일본어 원문에 「一、…二、…三、…」처럼 숫자만으로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등 순서를 나타내는 말로 적절히 번역할 것.

5.3 단위와 통화

일본 특유의 단위와 통화 이름은 일본어 음독을 한글로 표시한 후, 그 뒤에 ()로 일본 한자와 한글 사용자가 익숙한 단위로 근사치를 병기할 것. 단, 엔과 같이 현재 통용되는 단위는 ()를 굳이 표기하지 않아도 됨. 또한 한국에서 역사적으로 비슷한 단위를 썼을 때에는 한국어 한자음으로 표기할 수 있음.

① 1.5 億円 → 1.5 억엔

② 一尺 → 1 샤후 (尺, 약 29.7 cm)

→ 1 척

6 기호와 구두점 (약물)

6.1 기술기호

6.1.1 구분 기호

6.1.1.1 마침표(온점) .

한국어에서는 ‘.’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로쓰기, 세로쓰기에 관계없이 한글 글꼴의 마침표(온점)인 ‘.’로 통일한다. ‘.’ 뒤에 다시 문장이 올 경우, ‘.’ 뒤에 반각 공백을 넣는다.

① 奈良文化財研究所は、文化財を総合的に研究するための機関です。

→ 나라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6.1.1.2 쉼표 ,

한국어는 문장의 구성요소로서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쉼표는 주로 ① 명사의 열거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 뒤, ② '곧'(즉), '다시 말해'와 같이 반복해서 설명하는 부사의 앞, ③ 문장의 앞부분에 조사 없이 등장한 제시어-주어 뒤, ④ 한 문장에 같은 의미의 단어가 반복되는 경우, ⑤ 도치문 등에 사용된다.

쉼표를 사용하는 경우, 가로쓰기, 세로쓰기에 관계없이 한글 글꼴의 반각 쉼표인 ','로 통일한다. 또한 ',' 뒤에는 띄어쓰기를 한다.

① 平城京は東西約 4.3km・南北約 4.8km の範圍を中心に、東側に東西約 1.6km・南北約 2.1km の張り出し部分(外京)があり、北辺西側にも北辺坊とよぶ区画がありました。

→ 헤이조 경은 동서로 약 4.3km, 남북으로 약 4.8km 크기의 지역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동서로 약 1.6km, 남북으로 약 2.1km 의 외경(外京)이라는 돌출된 부분이 있었으며, 북측 가장자리의 서쪽에도 북변방(北辺坊) 이라고 하는 구역이 있었습니다.

② 第一、木簡

第二、古文書

→ 첫째로, 목간

둘째로, 고문서

③ 三四回

→ 3, 4 번

6.1.1.3 쌍점, 쌍반점 : ;

한국어에서는 쌍반점(:)을 문장 부호로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 어문 규범에서는 쌍점(:)의 사용법만 규정되어 있다. 한국어에서 쌍점은 ① 용어에 대한 설명, ② 연극 등에서 등장인물의 대화 내용을 나타낼 때, ③ 시·분·초, 권·장·절을 구분할 때, ④ '대'를 대신하여 사용한다(예 득점수 3:0). 문화재 번역에서는 이 중 ①이 가장 필요한 용법으로, 일본어 원문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나 정의 등을 전달할 때 사용한다(예①). 사용 시에는 한글 글꼴의 반각으로 하고 ':' 뒤에 띄어쓰기를 한다.

- ① また、近年では、地中レーダー（GPR）探査も実用化されている。
→ 또한, 최근에는 땅 속 레이더 (GPR: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도 실용화되었다.

6.1.1.4 가운뎃점 ·

한국어에서 가운뎃점은 ① 열거된 어구를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 표기할 때, ② 쌍을 이루는 어구 사이, ③ 공통된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표기할 때 사용한다. 한편 한국어에서는 일반적인 열거의 경우 가운뎃점을 사용하지 않고 ','를 사용한다(예①). 또한 ②나 ③의 경우에도 '·' 대신 ','를 사용할 수 있다.

위의 용도에 맞춰 가운뎃점을 사용할 때는 한글 글꼴의 반각인 '·'으로 통일한다(예②③).

- ① 平城京の中央北端につくられた古代日本の政治・経済・文化の中心である。

→ 헤이조경 중앙 북단에 위치한 고대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다.

② 緑・黄・青などの釉薬をかけた中国の陶器「唐三彩」をモデルに日本で「奈良三彩」が作られたのも、このような交流の成果でした。

→ 초록 · 노랑 · 파랑 등의 유약을 바른 중국 도자기인 「당삼채(唐三彩)」를 모델로 일본에서 「나라삼채(奈良三彩)」가 만들어졌던 것도 이러한 교류의 성과입니다.

③ 第32・33・34卷

→ 제 32·33·34 권

→ 제 32, 33, 34 권

6.1.1.5 물음표, 느낌표 ? !

물음표, 느낌표 등 감정이나 어조를 나타내는 것은 한글 글꼴에 따라 반각으로 통일한다. 또한, 문단 중간에 사용되는 물음표, 느낌표 뒤에는 반각 공백을 넣는다.

① 奈良時代を体験!!人面墨書土器を描こう

→ 나라시대를 체험! 인면 묵서 토기를 그려보자!

6.1.1.6 빗금 / \

한국어의 빗금 '/'은 ① 대조되는 두 개 이상의 어구를 묶어 표현할 때, ② 기준 단위에 해당하는 수량을 표시할 때, ③ 시의 행이 바뀌는 부분을 표시할 때 사용한다. 사용하려면 반각 슬래시 '/'로 통일한다. ①과 ②의 경우 '/' 뒤에 공백을 두지 않는다. ③의 경우 원칙적으로 '/' 뒤에 반각 공백을 넣는다.

한편, 한국어에서는 역사선(\)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일본어 원문에 역사선이 있는 경우, 그 쓰임새에 맞는 한국어 기호를 선택하거나, 그대로 사용할 경우

반각으로 한다.

① 『妙音寺 / 妙音時洞穴』

→ 『묘운지 절(妙音寺)/묘운지 절 동혈(妙音時洞穴)』

6.1.2 반복 부호 々 ヰ ヱ ヲ ヱ ヲ

한국어에는 반복 부호라는 것이 없어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어의 반복 부호는 형태에 관계없이 그 단어의 의미를 번역한다. 고유명사의 경우, 반복되는 부분의 한자를 일본어 발음의 한글 읽기로 표기한다.

① 玄宮樂々園 → 겐큐라쿠라쿠엔(玄宮樂々園)

6.1.3 연결 부호

6.1.3.1 붙임표, 줄표 - = --

한국어에서 붙임표(하이픈) '-'는 ①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하나로 묶어 열거할 때, ②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또한 줄표(대시) '-'는 ① 부제를 표기할 때 그 앞뒤에 붙인다(예①). 한편, 인명을 표기할 때 하이픈이나 이중 하이픈(=)은 사용하지 않으므로, 적절한 한글 표기를 찾아 표기한다(예②). 일본어 원문 그대로 하이픈과 이중 하이픈을 사용할 때는 한글 글꼴의 반각으로 한다.

① 「未来につなぐ平城宮跡-保存運動のあけぼの-」

→ 《미래로 이어지는 헤이조궁터-보존 운동의 여명-》

② クロード・レヴィ=ストロース (Claude Lévi-Strauss)

→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Claude Lévi-Strauss)

6.1.3.2 물결표 ~ ~

문장 속에서 범위를 표시하는 물결표는 한국어에서도 기간, 거리, 범위를 나타내는 데 사용한다(예①). 또한 물결표 대신 붙임표도 사용 가능하다. 물결표나 붙임표를 사용할 때는 한글 글꼴의 반각으로 한다.

- ① 12/29~1/1
- 12/29 ~ 1/1
- 12/29 - 1/1

6.1.3.3 줄임표

한글 번역에서 줄임표는 원칙적으로 6 개의 점 줄임표 또는 6 개의 점 마침표를 사용하지만, 3 개의 점 줄임표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또한, 줄임표 뒤에 어미가 있는 경우에는 한글 글꼴의 마침표를 붙인다(예①). 이 경우 줄임표 뒤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줄임표 뒤에 문장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줄임표와 뒤의 문장 사이에 띄어쓰기를 한다.

- ① 果して手習いの成果は…。
- 연습의 성과는 과연…….

6.2 괄호류

6.2.1 따옴표, 괄호 ‘ ’ “ ” () [] [] { } 【 】

한국어에서 큰따옴표(" ")는 ① 대화문, ② 말이나 문장을 직접 인용할 때 사용한다. 또한, 작은따옴표(' ')는 주로 인용문 안의 인용문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의 사용법은 일본과 거의 비슷하지만, 표기할 때는 한글 글꼴의 반각으로 한다. 두 개 이상 늘어설 때는 그 사이를 띄어쓰기 한다(예①). []는 []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는 ① 괄호() 안에 괄호를 사용할 때 바깥 괄호로 사용(예②), ② 한글 단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병기할 때, ③ 원문에 설명이나 논평

을 덧붙일 때 사용한다. { }는 ① 열거된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을 나타낼 때, ② 같은 범주에 속하는 다양한 요소를 묶어 세로로 표시할 때 사용한다.

한편, 한국어에는 '【 】'의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일본어 원문에 '【 】'가 있는 경우, 그 용법에 맞는 한국어 기호를 선택하거나,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반각으로 한다.

- ① “第一次大極殿” “第二次大極殿”
→ “제 1 차 다이고쿠덴” “제 2 차 다이고쿠덴”

- ② 707 年 (慶雲 4)
→ 707 년 [케이운 (慶雲) 4]
→ 707 년 [케이운 (慶雲) 4]

6.2.2 겹낫표, 겹화살괄호 『 』 〈 〉

한국어에서는 책 제목이나 신문 이름을 표기할 때 겹낫표(『 』)와 겹화살괄호(〈 〉)를 사용한다(예①). 따라서 일본어 원문에서 『 』, 〈 〉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른 괄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사용 시에는 한글 글꼴의 반각으로 한다.

- ① 『大阪毎日新聞』
→ 『오사카 마이니치신문』
→ 〈오사카 마이니치신문〉

6.2.3 홑화살괄호, 홑낫표 < > 「 」

한국어에서는 홑화살괄호(< >)와 홑낫표(「 」)를 소제목으로 그림이나 음악곡과 같은 예술 작품의 제목, 상호, 법률, 규정 등을 나타낼 때 함께 쓴다(예①). 또한, 홑화살괄호와 홑낫표 대신 ‘ ’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본어 원문에서 인용·강조를 나타내기 위해 홑낫표 「 」를 사용한 경우,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 ”를 사용하고,

“ ” 안에 추가 인용·강조가 있을 경우 ‘ ’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사용 시에는 한글 글꼴의 반각으로 한다. 또한, 두 개 이상의 기호가 나란히 있을 때는 닫는 괄호와 다음 여는 괄호 사이를 띄어쓰기 한다(예②).

① 緑・黄・青などの釉薬をかけた中国の陶器「唐三彩」をモデルに日本で「奈良三彩」が作られたのも、このような交流の成果でした。

→ 초록·노랑·파랑 등의 유약을 바른 중국 도자기인 「당삼채 (唐三彩)」를 모델로 일본에서 「나라삼채 (奈良三彩)」가 만들어졌던 것도 이러한 교류의 성과입니다.

② 村上隆「『富本銭』の材質に関する材料科学的研究」『文化財論叢Ⅱ』2002。

→ 무라카미 타카시 (村上隆), <“후혼센 (富本銭)”의 재질에 관한 재료 과학적 연구>, 《문화재논총Ⅱ》, 2002.

→ 무라카미 타카시 (村上隆), 「『후혼센 (富本銭)』의 재질에 관한 재료 과학적 연구」, 『문화재논총Ⅱ』, 2002.

6.3 수학 기호, 학술적 기호, 상업적 기호, 기타 기호

한국어 번역에서도 그대로 사용하되, 모두 한글 글꼴을 사용하고 반각으로 통일한다.

7 전시실 내의 각종 안내문 및 제목

7.1 유물

고고학 유물명의 한일 대응어에 대해서는 『한·영·중·일 고고학용어비교집』(국립문화재연구소, 2012)에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참고할 것. 한국의 문화재용어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한글화의 움직임이 있어 많은 용어들이 한글화되어 있다(扈素妍, 2022). 때문

에 한자를 그대로 한국어 한자 읽기로 표기하지 않고 한글화된 용어를 찾아 쓰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한다. 그러나 埴輪, 土師器, 須惠器와 같이 일본 고유명사로 된 유물들은 일본어 발음 대로 한글 표기한 후 ()에 한자를 넣어 뒤에 위치시킨다.

- ① 無文土器→민무늬 토기
- ② 埴輪→하니와(埴輪)
- ③ 土師器→하지키(土師器)

7.2 미술품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미술품 전시용어를 개선하기 위해 2004 년부터 쉬운 용어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하여 자문회의를 거쳐 2006 년에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출간하였다. 일본의 미술품을 한국어 번역할 때에는 이 지침을 따라 문양 등에 대해서는 풀어 쓰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설명카드의 크기나 길이를 고려하여 제목에는 부제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또한 재질 역시 설명카드에 이미 표기가 되어 있다면 생략하기로 한다. 풀어 쓴 한국어 타이틀 뒤에는 ()에 원제를 넣어 표기해 둔다. 이 경우에도 설명 카드에 원제가 이미 표기되어 있다면 생략한다.

- ① 鳥木石夾纈屏風→협힐 방식으로 새 나무 돌을 염색해 넣은 병풍(鳥木石夾纈屏風)
→새 나무 돌을 염색해 넣은 병풍(鳥木石夾纈屏風)
- ② 鳥毛立女屏風→새 깃털을 붙인 서있는 여성 그림 병풍(鳥毛立女屏風)
- ③ 紫檀金銀繪書几→자단 나무 금은 그림 독서대

7.3 문학작품 및 사료

널리 알려진 번역본이 있는 경우, 번역본에 사용된 제목, 장 제목, 등장인물 표기 및 번역을 사용한다. 그러나 번역되어 있지 않은 작품이나 사료명에 대해서는 원제의 일본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한 후 ()에 한자를 기입하여 표기하고 길이나 크기에 여유가 있다면 간략한 설명을 곁들인다.

① 『源氏物語』 → 『겐지 모노가타리』

② 『上宮聖徳法王帝説』 → 쇼토쿠 태자의 전기인 『조구쇼토쿠호 오테이세쓰(上宮聖徳法王帝説)』

